

근거이론을 적용한 이혼소송과정 분석*

김 요 완†

서울가정법원

연구자는 ‘결혼한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부부관계가 와해되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에서 연구에 동의한 6쌍(12명)의 부부를 심층면접 하였고,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절차를 통해 범주들을 도출하였고, 축코딩 절차를 통해 범주들을 패러다임에 연관시키면서 범주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으며, 선택코딩의 절차를 통해 중심범주로 ‘자존감 손상과 이의 간과로 인한 상호 공격과 관계 단절’을 도출하였다. 과정분석을 통해 이혼소송과정으로 갈등 발생 - 자존감 손상 - 무시 - 성관계 단절 - 역할 중단 - 상호 공격 - 단절과 같은 7가지 단계를 도출하였다. 중심범주로 자존감 손상을 도출한 것은 욕구와 요구의 충족을 통한 상대방의 자존감 존중이야말로 부부간의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부부관계는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때 부부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수단이며 매개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간접적인 연구가 아니라, 부부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심층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이혼소송과정, 자존감, 부부 의사소통, 근거이론, 심층면접

* 본 연구는 김요완(2007)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부부관계 와해과정 연구”의 일부를 요약,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요완,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 (137-738)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실.

Tel : 02-530-2521, E-mail : kywan@yonsei.ac.kr

이혼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다. Cavanaugh (1997/2001)는 이혼을 일탈로 규정하고 병리적 문제로 규정하였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이혼을 불가피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규정하기도 한다(이무영, 2003). 이혼의 관점과는 상관없이 결혼 후 부부들이 갈등을 겪고 법적인 이혼절차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부부 자신들은 스트레스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녀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이종숙, 1998; 성정현, 2001; 박한샘, 2004). 특히 이혼의 과정 동안 자녀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이혼의 피해는 세대를 거쳐 영향을 주게 된다. 이혼소송 중 부부간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에 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광배희(2002)가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의 이혼이 주로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자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00년도 이후, 국내에서는 이혼에 관하여 법학적 관점이 아닌 심리·상담학적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는 이혼의 원인, 이혼 가정 자녀들의 심리상태, 이혼한 부부 및 자녀들의 적응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인 부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통계청과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민법 840조에 명시된 법적인 이혼사유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부부만족도와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원가족과의 미분화 상태(정문자, 이종원, 2003; 권정란, 이인순, 2006), 가족규칙(박민지, 2005),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하상희, 정혜정, 2000; 연규진, 2006), 역기능적인 부부의사소통(장문선, 김영환, 2003;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간의 성

관계(김요완, 2000; 현경자, 김연수, 2002; 서선경, 최혜경, 2004), 부부 갈등대처행동(조유리, 김경신, 2000; 정선영, 2006) 등으로 파악은 했으나, 어떤 과정을 거쳐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이혼소송 과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이혼을 일련의 과정의 결과로 보고(Young & Long, 1997/2004),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데에 유사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혼의 과정을 Bowen과 Kerr(1988/2005)는 5단계로, Satir(1983)는 11단계로 설명하였고(연문희, 2004, 재인용), Bohannon (1970)은 6단계로, Kaslow(1984)의 연구, Sprenkle 과 Storm(1983)의 연구에서는 이혼의 단계를 3 단계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국내에 적용할 때, 연구자는 부부들이 이혼을 경험할 때, 특히 이혼소송 중인 부부들도 유사하고 공통된 단계들을 경험할 것이라 가정하였고 국내의 문화적·사회적 특징에 따라 외국과는 다른, 독특한 이혼소송과정을 경험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한편, 2004년 이후에 국내의 많은 심리학자, 교육학자, 상담학자, 사회복지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법원에서 협의이혼 상담위원이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적인 이혼 절차 중에 있는 부부들을 접할 기회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지만, 이혼소송 중인 부부를 심층면접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위해 부부 중에 주로 여성 일방 혹은, 남성 일방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광배희, 1993; 2002; 유경희, 2001; 이무영, 2003), 간혹 심층면접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박한샘, 2004; 최정숙, 2004; 최동인, 2005) 이들 연구 역시 여성, 또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연구한 것으로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과정에서 부부 관계가 와해되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는지의 과정과 이 과정에서의 부부간 상호작용을 알고자, 남, 여를 따로 면접한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을 심층면접 하였다.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을 파악하여, 회복이 어려운 단계 이전에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예방하는 이혼 예방적 상담에 도움을 주고, 이혼 소송 중 부부 상호작용의 특성과 각 과정의 단계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혼 조정과 이를 위한 상담기법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결혼한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부부관계가 와해되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

근거이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은 특별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Stern, 1980). 근거이론은 연구 주제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고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어떤 적절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을 때 특히 유용하다. 이론적 민감성을 통해 연구자는 근거이론으로 자료를 분석하면서 특정 현상에서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근거이론의 과정에서 자료 분석은 3단계 코딩과정으로 이루어진다(Streubert & Carpnter, 1995). 1차 코딩은 개방 코딩(open coding) 단계로서, 기초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 개념화, 범주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1996, p.73). 이 단계에서는 한 구절, 심지어 한 단어까지 쪼개어 자세히 검토하는 ‘행간분석 방법’, 문장이나 단락을 한 단위로 분석하는 ‘문장, 단락 코딩’과 문서자료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 등의 3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1996).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연구자는 현상을 명명하고 범주를 발견·명명하며,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를 발전시킨다.

2차 코딩은 축 코딩(axial coding) 단계로서 “범주들 사이에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개방 코딩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0/1996, p.116). 즉, 패러다임(paradigm model)을 활용하여 범주들을 연결시키는 단계인데, 패러다임에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중심현상’은 “자료 내에 제시되는 중심 생각”으로(Strauss & Corbin, 1998/2001, p.91),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p.117). 즉,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현상을 일컫는다.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조건(condition)’이 있고, 이 조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을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를 ‘결과(consequence)’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Strauss & Corbin, 1998/2001). 조건에는 ‘원인적 조건(caus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이 있다. ‘원인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일컬으며(Strauss & Corbin, 1990/1996, p.116),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2001, p.119).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일컬으며(Strauss & Corbin, 1990/1996, p.122),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는 조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1996, p.123). 즉,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조건이다(박한샘, 2004).

3차 코딩은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절차로서, 범주들을 통합하고 중심범주(central category)를 기술하는 단계이다(Glaser, 1978). 이 단계에서는 범주들의 연결을 체계화하여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명백히 하고 개념화하여 이론의 근거를 완성한다.

연구 진행 과정

참여자 선정을 위해 본 연구자는 82쌍의 부부를 면접한 자료를 분석하는 사전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3. 7. 11.부터 2005. 5. 30.까지 심층면접한 402쌍의 부부 중에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화해나 조정이 되지 않은, 분쟁의 정도가 심한 82쌍(164명)의 조사보고서, 메모지, 설문지 등을 분석하여 이혼소송 중 취하나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부들의 특성과 주요 이혼원인과 과정 등을 파악하였다. 폭행, 부정행위, 재산 확보, 의심행동, 음주, 상대방의 가출, 경제적 무능 등의 순으로 이혼원인을 파악하였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 선정에 위한 민감성을 갖도록 하였고 참여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이러한 원인을 가진 부부들에 한해 참여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근친상간, 위장 결혼에 따른 이혼 등의 극히 예외적인 원

인이 있는 부부는 참여자로 부적절하다는 기준을 선정하였다. 그 후 2006년 3월부터 연구 동의를 작성하여 연구에 동의한 2쌍의 부부를 심층면접 하였고, 활용한 연구 동의서, 연구 시 활용되는 질문, 자료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3명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았다. 이 때 부부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면접 시 녹음이나 촬영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연구자가 면접한 부부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부부로서, 재판상 이혼이 진행 중인 부부들이다. 부부들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접수된 사건은 20여명의 조사관에게 임의적으로 배당이 된다. 연구자는 2006년 4월 초부터 2006년 9월 말까지 73쌍의 부부를 면접했는데, 이들 부부 중에서 14쌍(19%)의 부부가 연구에 동의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는 시기에 있어서는 1차 면접 직후 또는 2차 면접 직전에 동의를 받았고 이후 녹음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 뿐만 아니라 녹음된 내용의 분석과 연구에의 활용에 대한 안내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연구자와 부부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 이전에 부부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했을 경우, 부부들이 법원 내에서의 연구자에 대한 권위에 의해 자신의 의향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동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부부들과 2~3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rapport)가 형성된 이후에 부부들에게 녹음과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녹음을 실시하였다. 단,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절할 경우 녹음을 실시하지 않고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부부면접과 필사자료

부부명	녹음시간		실제 면접 횟수		녹음한 면접일	필사한 쪽수 (쪽)
	시간(h)	분(m)	면접횟수	총횟수(회)		
{1}	3	12	오전 1, 오후 2	3	2, 3차	58
{2}	6	45	오전 1, 오후 2	3	2, 3차	125
{3}	5	13	오전 2, 오후 1	3	2, 3차	76
{4}	5	2	오전 1, 오후 2	3	1, 2, 3차	82
{5}	3	15	오전 1, 오후 2	3	3차	51
{6}	1	26	오전 1, 오후 1	2	1차	10
총	24	53		17		402
평균	4시간 9분		(8시간 24분)	2.8회		67쪽

연구자는 이들 14쌍의 부부를 심층면접 하였고, 사전연구에 따라서 연구에 동의한 부부 중에서 보편적인 이혼원인이 발견되고, 부부 평균 나이가 30대,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60대인 부부를 각각 선정하였다. 학력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개인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부부들을 선별하여, 6쌍(12명)의 부부를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한 쌍의 부부를 평균 2.8회, 총 8시간 24분을 면접하였다. 녹음시간 총 24시간 53분에 대한 내용을 모두 필사하였는데, A4용지에 글자크기 10, 장평은 100또는 90, 문단간격은 160%로 설정하여 필사 자료는 총 402쪽이었다.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모두 타이핑(이하 ‘필사’라고 함)하여 문서화한 자료, 메모 및 연구 노트 등으로 초기자료를 생성하였고, 자료 분석은 초기자료 생성과 동시에 실시하였다. 즉, 첫 면접 시 작성된 연구노트의 분석에서부터 자료 분석을 시작하였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자료 분석 과정을

반복하여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분석을 하였다.

코딩 절차

먼저 필사된 자료를 2~3회 읽으면서, 한 개인이 말한 내용을 한 단위로 해서 단락과 단어를 분석하였다.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목을 필사한 자료의 공란에 기록하였다. 6쌍의 부부, 12명을 ‘[1]남편/[1]처’부터 ‘[6]남편/[6]처’까지로 표시하면서 한 양식에 생성된 모든 개념들을 기록하고 분류, 비교하였다. 개념을 생성할 때에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 주체와 제3자와의 관계, 객체와 제3자와의 관계와 함께 사건의 시간, 속성, 차원 등을 고려하면서 논리적으로 중첩되지 않게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개념-하위범주-범주를 도출했다. 연구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사관으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4인(상담심리전문가 1인, 임상심리전문가1인, 사회복지사1인, 인지심리학전공자1인)에게 부부들의 대화 내용과

연구자가 명명한 제목이 얼마나 적절하게 연결되는 지 검토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개념-하위범주-범주들의 관련성을 표로 제작하여 전문가 4인에게 중첩성, 논리성, 개념의 모호성을 검토 받아서 수정을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다른 개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자는 전문가 4인 외에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사관 9명에게 설문을 받았다. 이를 연구자의 개방 코딩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새롭게 언급된 개념에 대해 연구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 다시 코딩을 실시하면서 포화가 될 때까지 이를 반복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개방 코딩의 자료를 가지고 축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축 코딩의 단계는 개방 코딩을 통해 파악한 범주들을 연관시키고 연합시키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0/1996). 축 코딩 단계에서는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조건(원인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 결과라는 패러다임으로 범주들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자는 패러다임으로 범주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범주와 패러다임 요소들이 적절히 연결이 되었는지 4명의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았다. 그 후 과정분석을 위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지를 파악하였고, 이 때 패러다임 요소가 어떻게 관련되는 지 정리하였다.

코딩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서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축 코딩과 마찬가지로 범주들을 통합하여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0/1996, p.139).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였고, 이야기 속에 흐르는 중심범주를 발견하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비교를 하였

다. 모든 범주를 통합하고 연결하여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였고, 이러한 이야기 윤곽을 통해 가장 중심적인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신뢰성·타당성 확보 및 연구윤리의 확보

Lincoln과 Guba(1985)는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 구분되게 수행되는 과정에서 4가지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신경림, 2003, 재인용). 첫 번째로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를 면접하고, 그 다음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의 면접 때 참여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한 속기를 읽어 주어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면접 중에 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연구자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두 번째로 적용성(application)을 위해 연구자는 매 면접마다 그전의 면접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지를 확인하였고, 부부들이 더 할 말이 없다고 했을 때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녹음된 내용과 필사본을 연구자 외에 4인의 전문가에게 보여 주어 확인케 함으로써 적용성이 충분히 만족되도록 노력하였다. 세 번째로 일관성(consistency)을 위해 연구자는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그동안의 연구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 과정을 거쳤으며, 적용성을 위한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4인의 전문가에게 현재 분석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중립성(neutrality)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공

개하며, 특히 연구노트에 연구자가 부부면접 시 느꼈던 느낌, 인식의 흐름 등을 기재하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는 시도를 하였다.

질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박순용(2006)은 익명성과 비밀의 보장 문제, 연구 초기 단계에서 사전 동의 문제, 연구 진행 단계에서 참여자와의 관계 설정 문제,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 자료 제시의 임의성 문제 등을 주장하면서 연구 윤리 확보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 초기 단계에서 연구자는 부부들과 친밀한 관계(rapport)를 설정한 후에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연구 목적과 자료의 연구 활용 및 녹음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녹음을 실시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비밀 유지, 익명성의 보장을 설명하였고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녹음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 진행 단계에서는 연구 자료의 생성과 보관에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연구 자료는 신상 내용을 포함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컴퓨터와 노트북에 비밀번호 장치 등을 하여 보안을 유지하였고 총 25시간의 녹음 분량 중 12시간의 필사를 의뢰했는데, 필사 대행자에게 보안 유지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필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부부의 대화 내용에서 개인적인 이름, 주소 등을 삭제하였고 특히 년도에 있어서는 가공의 년도를 기입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혼소송 중인 6쌍(12명)의 부부를 심층면접 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전체, 또는 이혼소송 외의 다른 방법, 예를 들면 협의이혼 중인 부부에게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또한 아무리 연구자와 부부간에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범법조사관과 이혼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면접이므로, 부부들은 상대방에 대한 과오를 주장하는 데에 과장과 왜곡을 하는 경향이 심하고 자신의 잘못 등에 대해 통찰하고 인정하고 있을 지라도 이를 진실하게 연구자 앞에 이야기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소송 중인 분쟁이 심한 부부에게로 적용이 한정될 수 있다. 둘째, 부부들의 원가족들,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특히 결혼 전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존감을 형성하였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을 자존감의 손상으로 보았으나, 원래 결혼 전 부모와의 관계에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했는지, 아니면 결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손상을 받았는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6쌍의 부부의 자료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짝자료로 이루어진 자료이나, 개방코딩 절차를 거치면서 자료가 쪼개지고 해체되면서 6쌍의 상호작용이 있는 짝자료가 12명의 독립된 개별 자료인 것처럼 분석되었다. 짝자료의 특성을 유지하는 양적 분석과는 달리, 근거이론의 절차상, 개별 자료를 해체하고 패러다임으로 전체 자료를 연결하는 개방코딩·축코딩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짝자료의 특성이 약화된 데에

아쉬움이 있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개방 코딩 및 축코딩 결과

개방 코딩을 통해 표 3과 같이 93개의 개념과 46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23개의 범주들

도출하였고, 축코딩 절차에서 범주들을 패러다임 요소와 관련지었다.

중심현상을 일으키게 된 원인들에 해당하는 범주들을 원인적 조건에 연결시켰다. 원인적 조건에는 ‘신중하지 못한 결혼’, ‘경제적 어려움’, ‘음주로 인한 갈등’, ‘폭력 행동’, ‘원가족과 갈등’, ‘역할 변화에 부적응’, ‘역기능적인 대화’ 등의 범주가 해당된다. 이러한 범주들 도출하게 된 부부의 대화는 아래와 같다.

어느 날인가..., 운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시작이 되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거 같아요. 그 때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부부명	원고/피고	이혼의사	직업	학력	월수입(만원)	연령대	혼인기간(년)	부부 평균 연령	자녀	
[1]부부	남편	피고	X	회사원	고졸	300	40대 초	14	30대 후	1남1녀 (미성년)
	처	원고	O	아르바이트	고졸	80	30대 중			
[2]부부	남편	피고	X	무직	대졸	150	40대 중	18	40대 중	1남1녀 (미성년)
	처	원고	O	무직	대졸	200 (건물 임대)	40대 초			
[3]부부	남편	원고	O	자영업	고졸	150	40대 중	26	50대 초	2남 (성년)
	처	피고	X	종업원	중퇴	150	50대 초			
[4]부부	남편	원고	O	회사원	중퇴	120	40대 중	17	40대 초	1남1녀 (미성년)
	처	피고	O	회사원	고졸	200	30대 후			
[5]부부	남편	피고	O	회사원	고졸	120	60대 중	42	60대 초	1남4녀 (성년)
	처	원고	△	무직	초퇴	60 (자녀 부양)	60대 초			
[6]부부	남편	원고	O	공장노동	초퇴	150	50대 초	24	40대 후	3녀 (미성년)
	처	피고	△	건설노동	초졸	150	40대 후			

표 3. 패러다임 요소와 범주와의 관련

개념(<i>concept</i>)	하위범주(<i>subcategory</i>)	범주(<i>category</i>)	패러다임 요소
성급한 결혼 어쩔 수 없는 결혼	신중하지 못한 결혼	신중하지 못한 결혼	원인적 조건 (<i>causal condition</i>)
찾은 이직 경제적 책임감 부족 가계 구조에 대한 무지 지출에 인식 도박으로 인한 탕진	개인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IMF의 영향	외부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		
음주, 늦은 귀가(외박) 신체적 폭행 강제적인 상관계 자녀 폭행	음주로 인한 갈등 신체적인 폭력	음주로 인한 갈등 폭력 행동	
욕설과 비난 폭력을 정당화 폭력행동 심각성 불인식	언어폭력 폭력을 정당화		
원가족과의 단절 원가족에 대한 배려 부족 원가족에 대한 무관심 원가족의 미분리	원가족과 관련한 경미한 갈등	원가족과 갈등	
원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상대방 원가족의 부당한 행동 가족 개입으로 갈등 확대 원가족에게 부부싸움 알림	원가족과 갈등 심화		
결혼 전 생활 습관 고집 변화된 상황 부적응	변화된 역할 불수용	역할 변화에 부적응	
여성을 억압 여성의 경제활동 반대	권위적 가치관		
찾은 거짓말 표면적인 대화	역기능적인 대화	역기능적인 대화	
무시하는 말과 태도 약속 불이행	무시당함	자존감 손상	중심현상 (<i>phenomenon</i>)
비인격적인 대우 악화된 관계 불인식	비인격적인 대우 악화된 관계 불인식	악화된 관계 불인식	
상대방 정보에 대한 무지 아플 때 방관 어려움에 미동참 지출 통제 및 감시 재산탕진에 대한 불안감 상대방의 남녀관계를 의심	무관심 의심 행동	갈등 요인 무시	맥락적 조건 (<i>contextual condition</i>)
자녀들의 어린 나이 경제적인 부담 결혼에 대한 책임감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이혼 결정에 갈등	중재적 조건 (<i>intervening condition</i>)
부모 이혼에 대한 상처 우려 사회의 부정적 인식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인식 부담 자녀 결혼 시 부담	자녀의 심리적 상처 우려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담		
현재 생활의 변화에 대한 부담 부모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 부모의 회유	변화에 대한 부담 부모의 반대		
보복과 협박 대처능력 상실	보복에 대한 우려 무기력		

표 3. 패러다임 요소와 범주와의 관련

(계속)

개념(<i>concept</i>)	하위범주(<i>subcategory</i>)	범주(<i>category</i>)	패러다임 요소
인내력의 한계	인내력의 한계	인내력의 한계	중재적 조건(계속)
부모의 이혼 권유 원가족의 불만 자녀들의 이혼 권유	가족의 이혼 권유	주위 사람들의 이혼 권유	
이혼 제안의 거절 무조건 법원에 호소 관계 회복보다는 재산에만 관심 위자료 금액 불일치 양육자 지정 의견 불일치	이혼 조건의 불일치	협의이혼시도의 좌절	
간통 고소	간통고소장 접수를 위한 이혼소송		
부적절한 정서적 애착 혼외성관계 성관계 거부 다른 여성과 비교	혼외 연애 성문제 발생	성관계 단절	작용/상호작용 (<i>action/interaction</i>)
가사일 및 식사대접 중지 빈번한 가출	자신의 역할수행 중단 가출	역할 중단 가출	
인격적 대우에 대한 희망 이혼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 이혼에 대한 두려움 황당함	자존감 회복 욕구 현실 거부와 불인식	이혼소송 결정 및 이혼현실인식	
자신의 과오 축소 잘못에 대한 부인 정신병자 취급 부정적 소문 전파 피해의식	상대방에게 책임전가 상대방을 왜곡되게 표현	대결 시작	
협박 및 폭력의 지속 갈등 해결보다 분노감 해소를 우선시 문제 해결보다는 회피	부적절한 갈등대처행동		
자녀양육 회피 자녀 격리	자녀양육 회피 자녀 격리	적극적인 상대방 공격	
고의적인 갈등 조장 소송을 장기화하여 고통을 줌	문제 해결의 지연		
재산 은닉 경제적 독립	소송에 대비	소송 준비	
도청기(녹음기) 설치 자료 수집	증거 수집		
소송자료를 자녀에게 공개 타인에게 배우자 역할 기대 과도한 취미생활	삼각관계 배우자 외에 관심 집중	배우자 외에 관심 집중	결과 (<i>consequence</i>)
상대방과 함께 하는 시간 최소화 자녀를 통한 대화 장기간 별거	대화의 단절 별거	배우자와 관계 단절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유부남으로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었고…. 어떻게 저랑 술 먹다가 잠자리 한 번 한 게, 우리 **이가 들어선 건데…. 그 관계를 다 끊는다고 나한테 약속을 한 다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4】 남편: 신중하지 못한 결혼】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는데…, 낮은 낮대로 일하고 밤은 밤대로 일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장애인도 돈을 버는데…, 몸도 멀쩡한 사람이 왜 돈을 못 벌어서 주냐고…. 투정은…, 스스로 했어요. 항상…. 장애자도 나가서 처자식 벌어서 먹인다. 며칠 전에 택시 운전이라도 한다는 사람이, 이게 뭐냐고…. 몸도 성한 사람이 왜 안 벌어서주고, 일을 안 하냐고. 항상 내가 그랬어요. 오죽하면 큰시누가.. 큰시누 남편이, 어디 빌딩 주차관리 하는데 소개시켜줬는데, 그래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가 아직 배가 덜 고했구만?” 하더라고요. 시누가…. 【3】 처: 경제적 어려움】

부모를 1년을 모셨습니까…? 애들이요? 거짓말입니다. **년도에 1년도…. 내 동생들 총각, 처녀일 때 담배피고 술 먹는 게 불편하니까 내쫓은 여자입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1년도 채 같이 안 살았습니다. 부모는 잠시 데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큰아들로서, 말이로서 동생들 제대로 못 데리고 있다가, 본인들이 집을 사 가지고 나갔어

요. 【3】 남편: 원가족과 갈등】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새 아파트고, 조금한 데서 살다가 아파트에 오니까 좋아했는데, 조금 있다가는 술 먹고 들어와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요?) 조그만 집에서 자기가 살아야 할 팔자냐고요. (**평이요?) 예.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그 얘기를 항상 했어요? **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살아야 하고, 그래야 되냐고…. 집, 작은 거에 대한 불만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사한 지 얼마 만에요?) 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그랬어요. 이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을 때부터 내내 그랬어요. 【2】 처: 역할변화에 부적응】

중심현상에는 ‘자존감 손상’, ‘악화된 관계 불인식’과 같은 범주가 있다. 또한 ‘갈등요인 무시’를 맥락적 조건과 연결시켰는데, 그 이유는 중심현상인 자존감 손상을 경험한 후에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보다는 갈등요인을 무시한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심현상에 대해서 ‘이혼결정에 갈등’은 작용/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인이고, ‘인내력의 한계’, ‘주위 사람들의 이혼 권유’, ‘협력이혼시도의 좌절’ 등은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요인이므로 중재적 조건과 연결하였다. 중심현상의 범주를 도출하게 된 부부의 대화는 아래와 같다.

(어떤 일로 힘들었는데요?) 그니까…, 생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구요…, 경제적

으로 힘들었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하니깐... 그리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돈도 그렇고..., 내가 여지껏 10몇 년을 빗지면서 살았다.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런 거는 아니다. 다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혼자만 행복한 거지... 내가 죽어 살면 그것이 행복한 거고... 나는 그게 아닌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고...

【2] 처: 자존감 손상】 ↔ 싸운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성격이 막 대들거나, 반박하거나, 우기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년 동안 부부싸움이라고..., 남들이 부부싸움..., 별일이 다 있지만, 우리는 부부싸움이라는 용어 자체가 별로 없고... (언제부터 부인한테 문제가 생긴 지 인식하게 되셨어요?) 그거는 200*년, 200*년.. 한 *월경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이네요.) 예. (그 전에는 전혀?) 예. 전혀요. (그 전에는 전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그럼 200*년 **월 이전에는 부인과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럼요, 그럼요. 【2] 남편: 악화된 관계 불인식】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기 전에는 밥도 안 해 준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날 새고 오기를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3] 남편: 자존감 손상】

여지껏, 2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혼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뭐..., 지금, 뭐..., 상대방은 성격 탓이라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남남이 만나서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제 생각은..., 저 이도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속인지도 모르겠고... 【6] 남편: 악화된 관계 불인식】

중재적 조건으로 촉진 또는 방해된 작용/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범주 중에서 ‘대결시작’, ‘적극적인 상대방 공격’, ‘소송 준비의 범주’를 도출하게 된 부부의 대화는 아래와 같다. 대결시작은 서로에게 경계심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관계의 회복을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상대방 공격과 구분된다.

그러니까 항시 그렇게 들어가며는 단둘이 있을 때 안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안하고 누가 온다거나 손님들한테 있다가 사람만 몇 사람 있으면서 그런 수법을 꼭 씁니다. 그런 수법을 써가지고 꼭 내 화를 돋웁니다. 【5] 남편: 대결 시작】

누가 소송을 걸었는데?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싸워 보자고... 법으로 한다는 사람이..., 여태 퍽박 받고 살았는데, 이왕산 거... 【3] 처: 적극적인 상대방 공격】

우리 아들한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해 왔다면...,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정신적으로 혼란이 있었나..., 우리 아들한테..., “아들, 얘기 좀 하자...”, “엄마 왜?”, “너 그 녹음기 있지?”, “응 녹음기 있지...”, “그거 지금 잘

되냐?”, “그거 아빠가 헛소리 하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면 “늑음해 니가, 몰래... 엄마 아빠 이혼해야해... 이혼할 때 나중에 다 써 먹어야 해...”, 이 사람이... 그게 10월 중순입니다. 아들한테... 【[2] 남편: 소송 준비】

결과에는 ‘배우자 외에 관심 집중’, ‘배우자와 관계 단절’과 같은 범주가 있는데, 이러한 범주를 도출하게 된 부부의 대화는 아래와 같다.

다음날, 그러니까 며칠부터 간다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 그날 저녁에도 맨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언쟁이 있으니까... “너 나갈 거면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하는 건데, 그날 저녁에 그냥 나왔어요. (**부터 여행을 가신 거예요?) 전날 나와서 그땐 그냥 서울에서 잠을 잤어요. 그날은 서울에서 자고 사실은 그 다음날부터 여행이 계획이 시작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을 갔었어요. **구경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씨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참석했어요. **에 그 **협회에 회장하고 계시는 분 그 여자 분하고 남편이 **이시거든요. (무슨 협회요?) **협회. **하는... 제가 취미로 몇 년을 **를 했어요. 【[2] 처: 배우자 외에 관심 집중】

그게 그때도 제가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우유배달, 신문배달 아파트에 했구요, 하면서 이제 낮에는 저기 보험회사 다녔어요. 같이 안 있으려고요. 【[4] 처: 배우

자와 관계 단절】

그 원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에도 12시 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지막으로... 자,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딱 그 한 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이 말 딱 한 마디 내 뱉더라는 거요. 【[6] 남편: 배우자와 관계 단절】

위와 같이 범주들을 패러다임과 연관시키는데에는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과 삼각측정(triangulation)에 의한 검증이 필요했다. 연구자는 12명의 부부들을 면접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정 표현에 집중하여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문하였다. 원고 또는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자존감 손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의 폭발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목소리의 심한 떨림, 눈동자의 떨림, 울음 등을 관찰할 수 있었고, 면접하는 각 횟수 마다 자존감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서 ‘자존감 손상’을 중심 현상으로 보았고, 연구를 검증하는 4명의 전문가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 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는 상대방이 그토록 심한 자존감의 손상을 받았는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갑자기 이혼을 당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상대방이 자존감 손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울음을 터뜨릴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보였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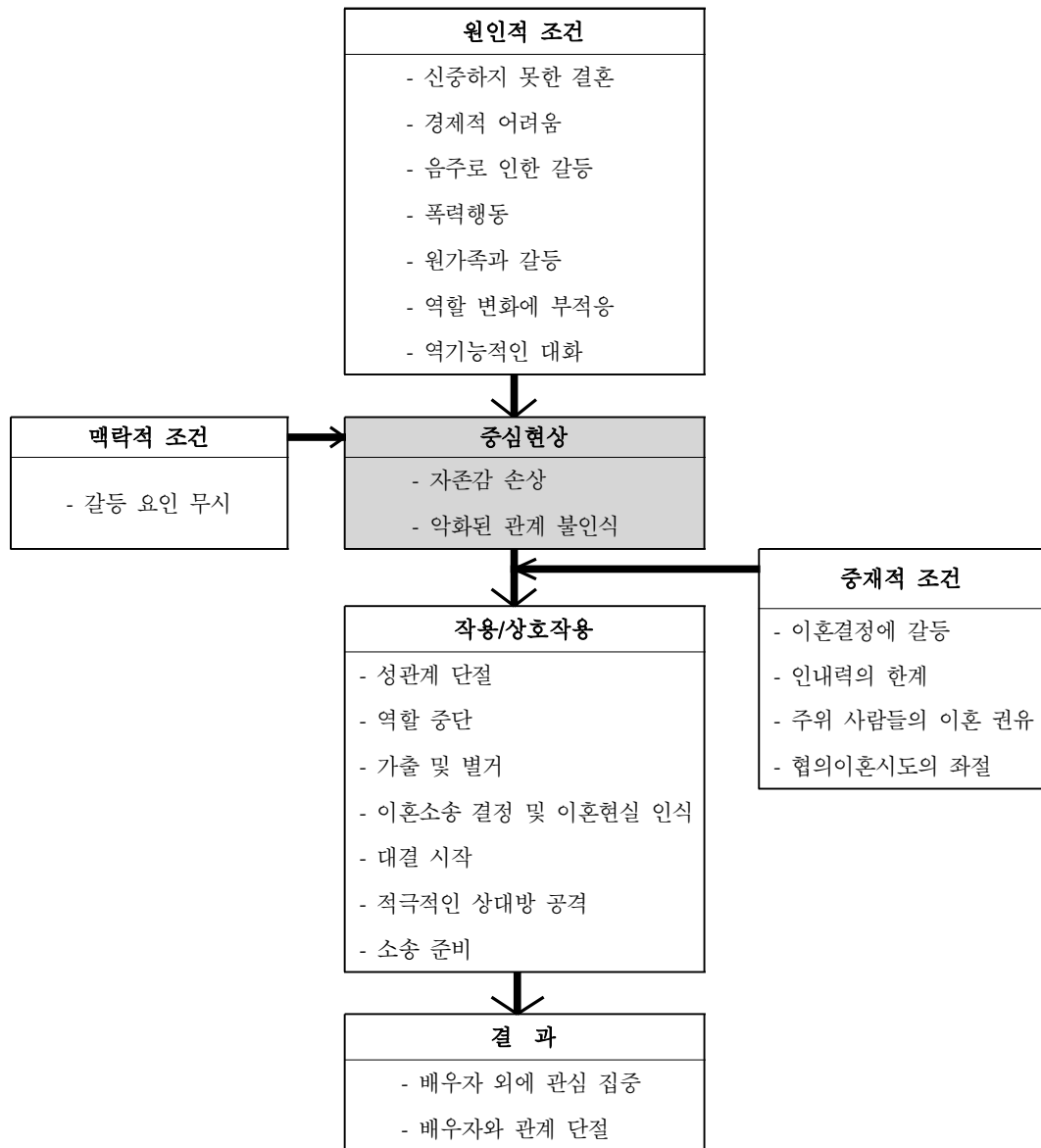


그림 1. 패러다임 요소와 범주와의 관계

연구자와 4명의 전문가도 ‘악화된 관계 불인식’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중심현상으로 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요소들과 범주들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혼소송과정 분석

과정(process)이란 한 가지 중심현상과 관련 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 작용의 순차적인 진행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축 코딩 절차 중에서 각 범주들을 패러다임에 연결시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해 파악하였고, 이렇게 파악한 이혼소송과정에 대한 분석은 그림 2와 같다.

갈등 발생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갈등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Parrott, III와 Parrott(1995)이 언급한 것처럼 역기능적 의사소통(대화방식의 문제), 남녀차이로 인한 갈등(역할 변화에 부적응)과 같은 부부갈등의 원인들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모든 부부들이 결혼 초에 이러한 갈등 요인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갈등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갈등이 노골화되는 지에 따라서 그 다

음 단계인 ‘자존감 손상 단계’로의 진행이 결정된다. 갈등이 노골화되는 매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다. 본 연구자가 면접한 부부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될 수 있었던 것은 갈등 발생 단계 때 발생한 요인들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고, 특히 부부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볼 수 없었다.

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가해자-피해자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즉, 부부 중 어느 한 쪽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육체적·심리적 상처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육체적 상처는 주로 신체적인 폭력, 완력 행사 등으로 발생하고, 심리적인 상처는 공격적인 언어, 비아냥대는 언어 등과 같은 언어폭력에 기인한다. 하지만 상처를 주는 쪽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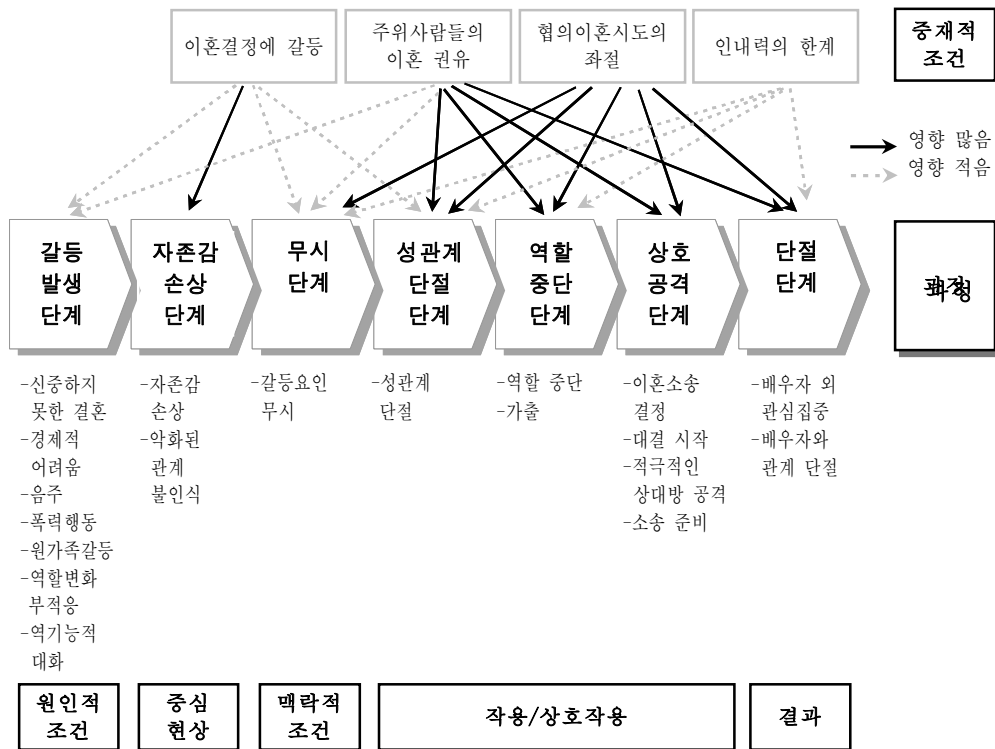


그림 2. 이혼소송과정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 지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는 쪽은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 지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 Gottman(1993, 1999/2002)이 언급했듯이, 이 단계에서의 대화의 주된 형태는 비난, 모욕, 자기변호, 도피의 모습이다. 즉, 상처를 받은 쪽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픈 심정을 전달하기 보다는 상처를 준 행동과 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적인 태도와 말로 대응한다. 결국 상대방은 자기변호에 일관하면서 더 큰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도피하면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지만 좌절을 경험하고, 상대방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객체는 부부의 원가족들이다. 부부가 원가족들과 얼마나 독립할 수 있는 지, 반대로 원가족들이 부부에게 얼마나 독립할 수 있는 지에 따라 부부간의 관계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부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결혼 후 변화하는 역할, 가치관 등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해결 여부가 결정된다.

자존감 손상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존감의 심한 손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배우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위와 같이 부부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되고 반복되며, 또한 심화되면서 부부들은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의 깊이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

적인 부부라는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단계에서 부부들의 정서는 자존감 손상으로 인한 우울, 분노, 무기력 등을 보이고, 상대방의 태도는 무관심과 부인(denial)의 모습을 보인다.

Maslow(1954)는 자존감에 대해 설명하기를,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서 상위의 욕구로 설명하고 있고 자존감의 욕구는 성취감, 자기능력의 확인, 타인이나 사회로부터의 인정, 명성, 존경받기 등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하였다(오경자, 윤진, 이훈구, 정찬섭, 최정훈, 한종철, 1999, 재인용). 본 연구자가 면접한 부부 중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부부들은 예외 없이 자존감의 심한 손상의 경험에 대해 호소하였는데, 무시당하고 약속이 쉽게 파기되고 인격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폭력을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비해서 상대방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원이라는 기관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자신이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들은 배우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황당하고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부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했던 매개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태도나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전달하는 부부 의사소통 방식이다. 또한 배우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없거나 배우자의 요구를 폭력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부부의 의사소통방식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Satir(1983, pp.69-70)는 “자존감이 성적 추동(sex drive)보다 우선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

자존감의 손상을 입은 배우자는 심각한 우울감과 분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배우자는 자신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미쳤다고 하며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 결국 더 심한 인격적인 모독과 공격을 하며, 이로 인해 더욱 심한 자존감의 손상을 경험한다. 이런 자존감의 손상을 경험한 배우자는 분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상담기관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 채 상처만 안고 살아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결국 인내심에 한계를 경험한다.

무시 단계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갈등 요인들로 인해 자존감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보다도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한다. 이미 이 단계에 들어서면 상대방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싸움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또한 상처받은 자존감에 의해 갖게 되는 분노감 역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친다. 이로 인해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되며, 동시에 자존감은 더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존재하는 지도 인식하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 부부들은 쌍방 모두 무시(neglect)와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상대방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하거나 직면하려는 것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혼을 결심한 상태는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부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기를 회피하게 되고, 상대

방은 배우자의 감정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결국 부부갈등의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고,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성관계 단절 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실망하고 노력해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성관계의 단절이다. 본 연구에서의 ‘성관계’란 적극적인 성행위(sexual intercourse)를 포함하여 입맞춤, 스킨십(skin-ship) 등의 광의(廣義)의 성행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의 부부는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기도 한다. 본 단계부터는 작용/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범주들이 포함된 단계로서, 그동안 부부관계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경험한 일방도 서서히 공격성을 표출하는 단계이다. 역할 중단과 상호 공격단계가 소극적·적극적 공격성을 표현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성관계 단절 단계는 그러한 단계에 앞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중단하는 단계이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단절 단계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정서적인 상호작용의 표현인 성관계는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에서 단절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6쌍의 부부에게서 공동적으로 발견되면서 본 단계를 경계로 심각한 부부관계의 와해과정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단계에 있는 부부는 연문희(1996)가 소개한 1, 2단계의 대화, 즉,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대화와 사무적인 대화만은 겨우 유지하고 충분한 감정적, 육체적 교류를 하는 성관계는 하지 못한다. 성관계의 단절은 부부관계의 위험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단초

역할을 한다. 성관계 만족 정도는 부부생활 만족도와 상관이 있으면서도 의사소통 수준과 매우 높은 상관이 있다(김요완, 2000). 즉, 이 단계에 놓인 부부들에게 있어 성관계 단절이라는 외형적인 요소는 부부간 의사소통과 친밀감에 어느 정도 문제가 존재하는 지를 나타내 주는 단서가 된다.

성관계 단절이라고 하면 단순한 성관계 거부나 혼외성관계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성관계도 포함한다. 부부간의 강제적인 성관계는 이미 강간에 해당하며 이는 성관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정도까지 관계나 정서적 애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지속되었고, 특히 소송 직전 동거하는 중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기보다는 위협으로 인한 강간이 발생한 경우를 의심할 수 있다.

역할 중단 단계

다섯 번째는 역할 중단 단계이다. 상호 공격 단계와 같은 적극적인 공격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단계이다. 그 전 단계까지 부부간에는 무시와 부인, 우울감 등의 정서와 태도를 보였다면, 이 단계에서부터는 공격성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단계에서 이혼을 원하는 쪽은 이혼소송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이혼을 결심한 상태이고, 협의이혼을 권유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상대방도 이혼의 현실을 분명히 자각한 상태는 아니나, 배우자에게 많은 불만과 짜증을 보이는 단계이다.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다가 이혼 결심을 철회하기도 하고, 반대로 주위 사람들이 자극제가 되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식사를 차려주지 않거나 빨래 등의 집안일을 하지 않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행실에만 탓을 하며 불만을 늘어놓는다. 이 단계 때 많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동거 중에 이혼소장을 접수한다. 분쟁이 심할 경우 부부가 별거를 하여 본격적으로 상호 공격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지만, 자녀가 미성년이고 부부가 자녀 양육에 그나마 관심이 있는 부부인 경우, 계속 동거를 하면서 법원에서 이혼이 결정되기까지 동거를 한다.

상호 공격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이혼소송을 결정하고 이혼의 현실을 깨달은 후에,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단계이다. 이 때 부부 쌍방이 보이는 정서는 격렬한 분노감정이다. 이 단계의 부부들의 특징은 갈등의 해결과 변화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싸움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싸움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상대방부터 심한 자존감의 손상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놀려 참은 배우자가 결국은 인내력의 한계를 느껴 폭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른 남성(여성)과 계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동안 자신의 자존감에 손상을 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험과 맞먹는 경험을 하게 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동안 상대방의 자존감에 심한 손상을 주었던 배우자도 이제 이혼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한다. 상대방을 모함하

거나 왜곡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을 장기화하여 그동안의 양상과는 또 다른 양상의 고통을 준다. 이 단계에서는 가해자-피해자의 구분 없이 모두 가해자의 입장에 선다. 이전에 피해를 입은 부부는 그동안의 분노를 발산하며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여 더 심한 공격을 한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와 바램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단계에서는 자녀를 상호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싸움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자녀를 내편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과장되게 이야기하여 편 가르기를 시작하기도 한다. 소송 결과에서 양육비의 부담을 덜고 자신이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받도록 자녀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정보들을 과장, 왜곡한다.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이 남편인 경우, 자녀들에게 역할중단 단계 동안 처가 집안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램이 나서 그렇다.”고 왜곡된 정보를 주거나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엄마가 참으면 되는데, 엄마 잘못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과장된 정보를 준다. 원고가 처인 경우에는 남편의 경우보다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녀들이 알아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녀들이 상대방에게 심한 분노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자녀들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여 소송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지 모르나, 자녀들은 부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특히 자녀들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관계를 하거나 경계를 하는 양

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녀를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양상으로,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을 해야 하나,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에게는 “네 아빠(또는 엄마)가 너희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여 자녀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한다.

단절 단계

마지막 단계는 관계가 단절되는 관계로서, 상대방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화를 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거나 자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한된 대화를 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 동안 배우자에게 억눌렀던 자신의 자아를 찾으려고 하여 과도한 취미생활을 하고 늦게 귀가를 한다. 또한 이혼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경제적인 자립을 하려고 직장을 알아보거나 재산을 빼돌리기도 한다. 이 전 단계에서 별거를 한 부부는 이 단계에서는 거의 남처럼 생활하지만, 그 동안 자녀 양육 문제 때문이나 경제 여건이 되지 않아 별거를 하지 못한 부부일 경우, 이 단계에서 가출을 해서 장기간 별거를 시작한다.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남남으로 서로 상관없는 생활을 한다.

선택코딩의 결과

선택코딩 단계는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중심범주를 도출하고 이론을 통합시켜 정교화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먼저 각 범주와 하위범주들을 연결시키면서, 참여자들에게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상호작용의 실체인 이야기를 형성하고, 이를 개념화하고 추상화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 윤곽을 전개한다. 이야기 윤곽을 통해 앞서 기술한 이야기를 좀 더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중심범주를 도출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결혼 초기에 부부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경험할 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갈등 요인들을 해결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은 지속된다. 부부 중 한쪽 배우자는 ‘자존감에 심한 손상’을 입으나 상대방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며, 이러한 삶이 계속 진행된다.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배우자는 마음속에 이혼을 결정해보지만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결국 이혼 결정을 주저하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소장을 받아본 상대방은 이혼이 현실로 닥침을 인식하게 되지만, 배우자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거나 위로하고 갈등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에 대한 왜곡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배우자와 대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사람이나 고통을 준 사람이나 상관없이 ‘상호 공격’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의 부부관계

는 싸움판 그 자체이며, 갈등의 원인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며 상대방을 공격하기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 때 주로 자녀들을 도구삼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어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이기기 위한 노력에만 집중하는데, 그러는 동안 대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장기간의 별거가 진행되어 결국 부부관계는 와해되고 단절된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와해과정은 ‘자존감 손상과 이의 간과로 인한 상호공격과 관계 단절’의 과정이며, 이는 연구자가 참여자들을 면접하면서 결혼 초에서 현재 소송에 이르게 되기까지 부부들의 관계가 와해되는 과정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중심범주를 ‘자존감 손상(自尊感 損傷)과 이의 간과(看過)로 인한 상호 공격(相互 攻撃)과 관계 단절(關係 斷絶)’로 도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부관계가 와해되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즉, 이혼소송은 갑자기 결정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건과 원인들로 인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의 결과이다. 부부는 심한 갈등을 경험하지만 무시단계를 거쳐 성관계 단절이라는 정서적 이혼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적인 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성관계 단절 이후에 이르게 되면 회복하

기 어려운 부부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이전 단계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이혼을 예방하는 상담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들을 위한 상담은 그 목적과 기법에 있어서 구분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을 예방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부부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중매체,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문화센터 등에서 부부들이 상담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하여 부부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부부 상담을 하는 전문가에게는 부부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민감성이 요구된다. 관계회복의 기회를 놓쳐 본격적인 상호공격단계에 있는 부부들, 즉 이혼소송 절차에 있는 부부들에게 실시되는 이혼 상담은 관계의 회복보다는 개인의 분노감 해소와 자존감 회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특히, 외국의 이혼 과정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호공격단계라고 하는 독특한 단계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부부간의 갈등에 원가족들이 개입하여 가족간 분쟁으로 갈등의 범위가 확대되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보다는 감정의 해소에 집중하는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원만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혼 조정(divorce mediation) 시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들의 면접과 상담이 필요하고, 분노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상담적인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혼 조정위원회 상담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기존의 법적 전문가인 이혼 조정위원회에는 상담적인 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들의 자녀는 상호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많은 심리적, 정서적인 피해를 경험한다. 즉, 부모의 이혼 그 자체의 현상보다, 이혼절차 중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분노감정과 상호 공격하는 상호작용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들에게 자녀의 피해를 방지하는 상담과 부모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6월, 민법이 개정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부들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들에게는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가 소송 중인 부부들에게도 확대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상담전문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의 이혼소송 중인 당사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 국내 현실에 맞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이혼소송을 결정하게 하는 가장 심층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자존감의 손상이다. 즉,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배우자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배우자가 나의 욕구와 요구를 존중해 주고 수용해 줄 때 가능하다. 이는 수용력과 같은 배우자 요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결국 부부간의 사랑과 친밀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존감은 부부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될 수 있고, 격의 없고 제한 없는 깊은 부부간의 의

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요구가 충족될 때 친밀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이혼소송의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한계점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혼소송과정을 분석한 연구로서, 갈등이 심한 소송중인 부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이다. 따라서 그 외의 부부에게까지 일반화할 수 있도록 이혼을 결심한 전 단계까지의 단계,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 등과 같은 법적인 절차 중인 단계, 법적인 이혼 후 적응의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이혼하는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인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에서의 법적인 절차가 아닌, 일반 상담소나 연구 장면에서 부부들을 면접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자존감 손상이 주요 이혼의 원인으로 밝혀졌으나, 부모와의 관계가 준 영향은 없는 지에 대한 개인사적인, 연대기적인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부부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떠한 이혼 과정을 보이는 지를 밝혔는데, 좀 더 나아가 남성 및 여성, 또는 원고 및 피고의 입장에 따라 이혼의 과정 중에 어떻게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연구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배희 (1993).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2002).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권정란, 이인순 (2006).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35-56.
- 김요완 (2000).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성지식 수준의 성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박민지 (2005).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박순용 (2006). 연구자의 위치와 연구윤리에 관한 소고 - 문화기술지연구를 중심으로 -. 미래교육 연구, 19(1), 1-29.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성격, 19(1), 65-83.
- 박한샘 (2004). 이혼가족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 접근 -,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서선경, 최혜경 (2004). 한국 기혼남녀의 부부간 사랑과 성생활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81-200.
- 성정현 (2001).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논문 발표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전.
- 신경림 (2003). 현상학적연구의 이론과 실제.

- 간호학탐구, 12(1), 58-62.
- 연규진 (2006).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분석.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연문희 (1996).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서울: 양서원.
- _____ (2004). 참 만남을 위한 한쌍의 대화. 서울: 학지사.
- 오경자, 윤진, 이훈구, 정찬섭, 최정훈, 한종철 (1999). 인간 행동의 이해. 서울: 범우사.
- 유경희 (2001). 여성주의적 집단상담에 이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 이무영 (2003). 이혼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이종숙 (1998).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한 심리사회적 발달적 이해. 인간발달연구, 5(1), 162-183.
- 장문선, 김영환 (2003).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의 의사소통패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99-414.
- 정문자, 이종원 (2003).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4.
- 정선영 (2006). 부부갈등과 갈등표출방식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조유리, 김경신 (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최동인 (2005). 크리스천 중년 여성들의 이혼 후 적응형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최정숙 (2004). 여성의 이혼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하상희, 정혜정 (2000).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 가정학회지, 3(2), 27-38.
- 현경자, 김연수 (200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49(5), 225-263.
- Bohannon, P. (1970). The six situation of divorce. In Bohannon, P.(Ed.), *Divorce and after*. New York: Doubleday.
- Bowen, M, & Kerr, M. E.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88 출판).
- Cavanaugh, J. C. (2001). 성인발달과 노화.(김수정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97 출판).
- Glaser, B.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ottman, J. M. (1993).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Lawrence Erlbaum Assoc Inc.
- _____ (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임주현 역.). 서울: 문학사상사. (원저 1999 출판).
- Kaslow, F. W. (1984). Divorce: an evolutionary process of change in the family system.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7(3), 21-39.
- Parrott, III, L., & Parrott, L. (1995). *Saving your marriage before it starts: seven questions to ask before (and after) you marry*. Michigan: ZondervanPublishingHouse.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 3rd ed.*

- Palo Alto, Calif.: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prenkle, D. H., & Storm, C. L. (1983). Divorce therapy and outcome research: a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9, 239-258.
- Stern, P.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2, 20-23.
- Strauss, A. & Corbin, J. (1996). 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지, 신경림 역.). 서울: 한울 아카데미. (원저 1990 출판).
- _____ (2001).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원저 1998 출판).
- Streubert, H. J., & Carpenter, D. R. (1995).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Young, M. E., & Long L. L. (2004). 부부 상담과 치료(이정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97 출판).
- 원 고 접 수 일 : 2009. 2.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9. 4. 21
게 재 결 정 일 : 2009. 5. 16

An Analysis on the Process of Divorce Suit with a Grounded Theory

Kim, Yo Wan

SEOUL FAMILY COURT

For this study, I raised the question, “What process do married couples take that leads to a divorce suit?” and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with 6 couples(12 persons) who are in the course of a divorce suit at the Seoul Family Court.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grounded theory. By checking the relations among categories and carrying out the course analysis through the paradigm, seven stages of marital disruption were identified as follows: beginning of conflict, damage to self-esteem, neglect, cessation of sexual behaviors, breakdown of roles, mutual attacks, and disruption. At this juncture, close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is the most crucial means and effective mediation to save the marriage.

Key words : *process of divorce suit, self-esteem, marital communication, grounded theory, in-depth interview*